

# 전세계에서 발생한 해적피해건수 지난해와 비슷

## 올 상반기 전세계 발생건수의 40% 동남아지역

올 상반기중 전세계에서 발생한 해적피해건수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의 발생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전세계의 40%를 차지하는 등 이 지역에서의 해적피해건수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산하기관인 국제해사국(IMB :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전세계에서 발생한 해적피해건수는 127건으로 전년동기와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해적발생건수를 보면,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발생건수는 51건(이 중 인도네시아 33건, 말라카해협 3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건이 감소했지만, 세계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건이 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 발표후에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하반기에 들어서서 말라카해협에서 다시 해적피해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 상반기 중 인도 대륙해역에서는 26건의 해적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8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사건은 모두 동국의 치타곤에서 발생한 것으로 IMB의 PRC(Piracy Reporting Centre)에서는 특히 이 지역에서 경계를 강화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 홍해와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도 지난해 상반기 27건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32

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소말리아에서 인질이나 유괴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2003년부터 해적 사건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질, 몸값 목적으로 유괴된 선박의 승객 및 승무원은 합해 169명으로 전년동기의 41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중 해적들에 의해 살해된 승객 및 승무원은 한사람도 없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6명이 살해되고 있어 사건의 흉악화, 인적 피해의 확대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다.

올 상반기중에 일어난 주요 해적피해사례를 보면, 선박 및 선원 납치사건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이네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6년 1월6일, 인도네시아의 일반화물선 'MV Alfa Gemilang' 호가 항행중에 하이jack되었다. 산핏트 출항전, 본선 선장은 5명의 밀항자를 승선시켰지만, 출항 다음날, 그 5명에게 본선이 납치되었다. 게다가 3명의 해적이 합류해 1월10일 8명의 본선 승무원과 검사관은 필리핀의 Tawi-Tawi섬에 내려졌지만, 3명의 승무원은 본선과 함께 해적에게 납치되어 아직까지도 행방이 불명한 상황이다.

또 2006년 2월방글라데시의 치타곤에 묘박중이었던 일반화물선 'Germana' (리베리아적)호가 해적에게 습격당했다. 5명의 해적은 엔진고장을 가장해 배에 접근했다. 각목을 가진 해적 3명이 선미로부터 승선하여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한뒤 선내의 비품을 빼앗아 도주했다.